

안산톡톡을 새롭게 전하기 위해 '보이스아이'가 도입되었습니다. 우측 상단 코드를 '보이스아이' 앱으로 스캔하면 시각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도 소식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표지사진 촬영에 도움을 준 주아민, 김윤아, 올리아노바 까츄샤, 이하람, 윤서준 어린이 감사합니다!

02-03 특집

안산시 코로나19 대응 지원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유행으로 달라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시가 내놓은 다양한 지원 시책들을 한 번에 모았다.

08 안산, 안산인

'단원(壇園)의 도시' 안산

조선시대 천재 화가 김홍도의 일생과 업적뿐만 아니라 예술혼이 담긴 작품까지 소개한다. 단원미술관이 기획한 콘텐츠 전에서 그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11 안산, 안산인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개

다문화중심도시 안산시에 이들의 정착을 돕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있다. 한국어교육은 물론 생활상담,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지원 제도들을 살펴보자.

12-13 기획

한 눈에 보는 안산시 체험 프로그램

도심 숲 속 산책부터 대부도 갯벌까지. 답답한 '집콕' 생활에서 벗어나 안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학교

가정

회사

안산시민

즐기로운 일상 생활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02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간격 건강 거리두기

03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04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함께 극복! 커지는 행복!

안산시 코로나19 대응 지원제도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소중한 일상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안산시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장 방역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빠른 확산을 막고자 민·관 합동방역 실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물품 적극 지원 등 생활밀착형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사회 추가 감염을 차단했다.

여기에 '자가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외국인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장 관용차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 등 안산시만의 선도적인 방역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안산시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 시책들을 자세히 알아보자.



경 제



안산화폐 다운 발행액 확대

- ◇ 지원대상 다운 구입 고객 (법인은 별도 혜택 없음)
- ◇ 발행형태 카드(고객센터 1899-7997), 지류(콜센터 1666-1234)
- ◇ 구입한도 1인 월 60만원
- ◇ 해 택 개인 : 평상시 6%, 특별기간 10% (7월까지 10%, 이후 미정)
가맹점 : 매출 증대(시 홈페이지 다운 메뉴에 가맹점 등재)
- ◇ 관련문의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2921, 2843)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 ◇ 지원대상 안산시민, 외국인 (지급단위 : 개인)
- ◇ 신청기간 2020. 4. 20. ~ 7. 31.
- ◇ 기 준 일 2020. 4. 2.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산시에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국내거소 신고가 된 자
- ◇ 지급금액 시민 10만원, 외국인 7만원 (1인 1회 지급)
- ◇ 관련문의 안산시 기획예산과(031-481-3466)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 지원대상 경기도민 (지급단위 : 개인)
- ◇ 신청기간 온라인(기존보유 개인카드) : 2020. 4. 9 ~ 4. 30
오프라인(미신청자) : 2020. 4. 20. ~ 7. 31.
- ◇ 기 준 일 2020. 3. 23.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
- ◇ 지급금액 1인 1회 10만원
- ◇ 관련문의 안산시 기획예산과(031-481-3464)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 지원대상 모든 국민 (지급단위 : 가구)
- ◇ 신청기간 온라인 : 2020. 5. 11. ~ 5. 31. / 오프라인 : 2020. 5. 18. ~ 6. 18.(추후 변경 가능)
- ◇ 가구구성기준일 2020. 3. 29.
- ◇ 지급금액 가구별 1회 지급

가구별	지급액	가구별	지급액
1인 가구	37만4천원	3인 가구	74만8천원
2인 가구	56만1천원	4인 가구 이상	93만5천원

- ◇ 관련문의 안산시 기획예산과(031-481-3462)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

- ◇ 지원대상 및 내용
 - ①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안산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관내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특례보증 대출금리의 4% 지원
 - ② 안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관내 소상공인
-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최초 1년분(대출금의 연1%)
- ◇ 신청기간 2020. 6월 ~ 12월(자금 소진 시 까지)
- ◇ 신청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031-482-8401)
또는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2696)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감면

- ◇ 감면기간 2020. 5 ~ 7월 고지분 (3개월간 적용)
- ◇ 대상업종 총 1만7천212건(대기업 제외)
일반용 : 100% 감면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 50% 감면
- ◇ 감면절차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업종 일괄 감면
- ◇ 관련문의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031-481-2441~2443)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 ◇ 지원기간 2020. 5월 ~ 12월
- ◇ 지원대상 안산시 내 창업 2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90%
- ◇ 지원내용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담 중복 가능
지원부담 : 홍보물 제작지원, 광고비 지원, 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등
- ◇ 관련문의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2696)

코로나19 피해 강제휴업보상비 지원

-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휴업
또는 폐장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 ◇ 신청기간 사업공고일 ~ 2020. 12월(자금 소진 시 까지)
- ◇ 지원내용 업체당 1일 1백만원(최대 2일) *방역작업에 따른 소요일수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사업장 휴·폐장에 대한 휴업보상비
- ◇ 관련문의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2696)



생활복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 ◇ **지원대상** 2020. 3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
- ◇ **신청기간** 2020. 4월 말 ~ 7월
- ◇ **지원내용**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다운로드 카드 등 지급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가구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수급자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수급자	1인 520,000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 ◇ **관련문의**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2211)

긴급복지 지원

- ◇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기준 1억1천8백만원, 금융기준 5백만원 이하)
-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 **지원액**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주거비	290,300		422,900		557,400	
의료비	300만원 이내(1회)					
기 타	교육지원, 연료비(동절기 9만8천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 **관련문의**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 ◇ **지원대상**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3월 아동수당 수급자 (3월 출생자 포함)
- ◇ **지원액** 아동 1인당 40만원 일시 지원
-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민(아이)행복카드 포인트로 자동 지급
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기프트카드로 신청 (복지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 **관련문의**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3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 ◇ **지원규모** (단위: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14일 미만 격리된 경우 일할 계산 지원

- ◇ **제외대상**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
- ◇ **관련문의**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상품권(지역화폐) 지급

- ◇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 / 2020. 5. 25 ~ 5. 29
- ◇ **지원내용** 활동비의 30%(8만1천원)을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로 20%(5만9천원) 상품권(지역화폐) 지급
- ◇ **신청방법** 사업 참여자 해당 수행기관
- ◇ **관련문의** 안산시 노인복지과(031-481-3352)

화랑유원지 자동차극장 운영

- ◇ **운영기간** 5월 15일 ~ 6월 6일(매주 금, 토)
- ◇ **장 소**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 ◇ **입차시간** 오후 6시 ~ 7시 30분(상영시간 : 오후 8시)
- ◇ **관람료 및 관람대수** 무료 / 100대(개인차량을 이용한 관람)
- ◇ **상영영화** 히트맨, 라라랜드 등
- ◇ **관람문의** 안산시 관광과(031-481-2355)



보건의료 · 교통



방역물품 무상지원 서비스

- ◇ **지원대상** 안산시민
- ◇ **대여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 ◇ **대여물품** 각 동별 소독 분무기(20L(5대), 5~7L(5대), 2L(5대))
- ◇ **대여장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
- ◇ **무상지급** 소독약(개별용기 지참), 부직포 행주
- ◇ **대여방법** 당일 현장 선착순접수, 자체소독 후 반납(기본2시간)
- ◇ **관련문의**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2645)

관내 학교 열화상카메라 지원

- ◇ **지원대상** 관내 학교 30개소(교육부 지원제외 학교)
- ◇ **지원기간** 학교 개학일 ~ 상황종료 시
- ◇ **지원용품** 열화상카메라 30대
- ◇ **주요내용** 교육부의 열화상카메라 설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내 학교에 대해
시에서 지원하여 학생 건강권 보장
- ◇ **관련문의**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3363)

자가격리자 개별구호물품 지원

- ◇ **지원기간** 2020. 1월 ~ 12월
- ◇ **지원대상** 관내 거주 자가격리자
- ◇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안산시 농특산물(1인 5만5천원 상당) / 가정방문 전달
- ◇ **관련문의**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2862)

안산도시공사 위탁 공영유료주차장 3시간 무료개방

- ◇ **개방대상** 11개 권역, 58개소(안산도시공사 위탁운영)
제외대상 : 8·9권역(민간) 공영유료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 ◇ **개방일자** 2020. 3. 10. ~ 비상상황종료 시까지
- ◇ **이용요금** 입차 후 무료 3시간 이후 요금 징수 (2020. 4. 22부터)
- ◇ **변경사유** 장기 주차 등의 주차장 혼잡 방지
- ◇ **관련문의**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974)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

- ◇ **지원대상** 해외입국자(안산시 거주자) 중 무증상자
- ◇ **지원내용** 해외입국자 관용차량 수송 및 통역서비스
-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하차 후 자택 귀가 지원(오전 7시~오후 10시)
- 통역지원 : 4명(영어 2명, 베트남어 2명), 2인 1조 근무
- ◇ **관련문의** 안산시 대중교통과(031-481-2955)

“국가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안산시, 6·25 70주년 맞아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 없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현충일, 6·25 한국전쟁, 6·29 제2연평해전 등이 일어난 6월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 보장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과 교육, 취업, 의료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세워 이들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안산시는 호국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안산시만의 정책들을 살펴보자.

안산시는 가장 먼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나이

제한’ 기준을 없앴다. 기존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이 65세 미만의 국가유공자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것이다. 안산시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나이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며 조례를 개정했다.

지급 대상은 안산시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현재 안산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규대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1분기 기준, 안산시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참전유공자 2천161명, 그 외 유공자 1천842명으로 총 4천명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를 위한 보훈회관도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 보훈회관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8-2번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천160㎡ 규모로 들어선다. 이곳에는 보훈단체실, 향군단체실, 대강당, 물리치료실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시설과 공간들이 갖춰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안산시는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연간운영비 보조금 인상, 차량운영 지원 등으로 보훈단체 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로부터 ‘2018년도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우수 보건소’로 선정된 단원보건소는 2018년 8건, 2019년 7건 등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진행 중인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통해 1천468명에게 국가유공자 명패를 전달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중단됐으나, 향후 상황에 따라 재개할 방침이다.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은 6월6일 오전 9시50분 원곡공원 소재 현충탑에서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참석 인원은 100여명이다. 이날 호국보훈 행사에서는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2861)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지원 활동 제공

긴급 생계물품 지급, 건강 및 안전확인 등 생활안전지원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취약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안전확인, 사회참여지원, 생활교육, 자원연계 등 어르신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 맞춤형으로 계획해 서비스를 제공,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대다수의 어르신이 외출과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 대부분의 사회활동이 단절돼 심리, 정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긴급지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

긴급지원 활동은 관내 7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

관이 취약어르신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를 가정에 보내 ▲가정 내 소독 등 생활방역 실시 ▲어르신의 안전 및 안부확인 ▲발열체크 등 건강관리 ▲긴급생활용품, 쌀,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각 수행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고립돼 돌봄 공백이 큰 취약 어르신들에 대한 심리적 위로 및 생활안정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동산노인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참여로 ‘응원편지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 서로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자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한 어르신은 “친구를 만나지도 못해 많이 답답했는데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전화도 자주하고 집안 구석구석과 계단 난간처럼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곳을 소독해줘서 크게 안심이 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다수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이 단절돼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및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크게 감사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어르신들이 활력 넘치는 웃음소리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 : 안산시 노인복지과(031-481-3351)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해드립니다



안산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및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관내 반려동물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보다 1천100마리 증가한 3천여마리의 등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안산시민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동물병원에 개와 함께 방문하면 된다. 지정 동물병원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nongeo.ansan.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등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이번 사업을 통해 등록하는 것이 좋다.

문의 :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52)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경기 부양 효과 커

시민 “가게에 도움된다”, 가맹점 “이용객·매출 모두 증가했다”



안산시가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7일부터 11일까지 SNS를 통해 시민 1천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7%가 가게에 보탬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79.5%는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가맹점 업주 24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

문조사에서는 응답자 모두 이용객과 매출이 늘었다고 했다. 특히 84.6%가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 안산화폐 다온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생활안정지원금과 다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효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온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모두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방문 손님과 매출액이 각각 10% 이상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37.5%는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83.3%는 생활안정지원금이 다온으로 지급돼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하는 등 생활안정지원금이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온카드 사용액은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폭증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1

억8천만 원이었던 다온카드 하루 평균 사용액은 이달 들어(5.1~11) 3억3천여만 원에 달하는 등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이 도움이 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경제 위기 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안산시 공식 페이스북과 ‘안산소식 페이스북’을 활용해 실시됐다. 시는 앞으로도 오프라인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2921)

안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연말까지 일동·고잔동에 19가구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된 공간

‘안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이 될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이 상록구 일동과 단원구 고잔동에 모두 19가구 규모로 올 연말에 들어선다. 케어안심주택은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한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빌트인 가전으로 채워졌으며,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 옥상공원도 함께 조성된다.

LH주택공사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4층 규모의 케어안심주택을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고잔동에 지어지는 케어안심주택에는 9가구가, 일동에는 10가구가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모든 건물에는 건강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다. 이곳에서

는 보건의료진들로부터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공동체 활동가·문화 예술인 등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어르신들이 입주하는 각 주택에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환경이 조성된다.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미끄럼방지 바닥과 안전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응급비상벨, 자동가스차단기 등이 설치되며, 빌트인 가전제품으로 채워져 편리성을 높인다.

입주 대상 어르신은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선정할 방침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안산시 한의사회·안산시 약사회 등 관계기관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단체와 협력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2865)

안산시,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 입주 작가 모집

6월1일부터 5일까지, 커피·문화공방 등 4곳 접수



안산시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창업 역량을 키워주고 시민들에게 생활 속 문화예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의 공방 운영 2기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Station-A는 지난해 지하철 4호선 고잔역 철도유류부지에 디젤동차 무궁화호 2량을 개조해 꾸민 철교 위 문화예술 공간으로, 커피공방, 캔들·석고방향

제, 리본공예, 스테인드글라스(유리공예) 등 4개 창업공방이 입주해 운영 중이다.

모집대상은 커피공방 1개소, 문화공방 3개소이며, 안산 시민 중 개인 또는 2~5인 이내로 구성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으로, 별도 입주비용 없이 커피공방 입주자에게는 커피장비와 카페 운영공간이, 문화공방에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작업대가 지원된다.

개인 활동 및 창작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은 100% 작가의 몫이 되며, 입주자는 매월 전기비 등 관리비로 커피공방은 3만원, 문화공방은 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6월1일부터 5일까지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croco9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를 진행,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를 거친 후 6월23일 최종 합격자를 안산시 홈페이지와 개별통보 등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는 기존 ‘Station-A’에 기차 1량을 추가로 조성해 창업공간을 확대하고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 풍성한 기차를 활용한 마을공방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의 철길 명품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달라진 '학교 풍경'

80일 만에 등교하게 된 고3, 2주 늦춰진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학사 일정이 변경됐다. 학교들의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지 80일 만에 전국 2천300여개 고등학교가 문을 열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맞이했다. 인천과 안성에서는 등교 첫날, 확진자 발생으로 학생들을 모두 귀가 조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등교 수업에 차질을 빚었지만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학사 일정이 정상 운영되면서 일상생활 복귀라는 작은 기대감도 나온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6월 모의평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달라진 대학 입시 일정 등을 알아보자.

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18일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모의평가는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진다. 올해부터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와 EBS 수능 교재와 강의의 출제 연계성은 70% 수준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며, 한국사(필수)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만약 응시하지 않으면 해

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모의평가 대상은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다. 2020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장에서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기능이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함께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수학 영역에서 쓸 수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 등을 제공한다. 6월 모의평가 성적통지표는 오는 7월9일 통지된다.

이와 함께 수능과 수시·정시모집 등 대학입시 일정도 전체적으로 2주 늦춰진다. 2021학년도 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미뤄 시행한다. 이에 맞춰 대입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마감일도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정시는 11월30일에서 12월14로 각각 늦췄다. 수능성적표도 12월9일에서 12월23일로 바뀌었다. 이번 수능에서는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 또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영역 절대평가가 올해도 유지된다. 평가원이 밝힌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수능 출제 연계성도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이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응시수수료 환불, 면제 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는 7월 발표하는 시행세부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등교일정

학 년	고3	고2, 중3, 초1~2, 유치원	고1, 중2, 초3~4	중1, 초5~6
개학일	5.20(수)	5.27(수)	6.3(수)	6.8(월)

문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043-931-0114)

안산화정영어마을, 시민 대상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 시작

SNS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영어 학습 공백 해소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들의 오프라인 체험교육을 대신할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는 안산화정영어마을이 시민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공백 해소를 돕기 위해 만든 학습프로그램으로 '안산화정영어마을 온라인 소풍 (AHEV Online Picnic)'을 이용해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AHEV Online Picnic은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카페, 카카오톡 등 총 4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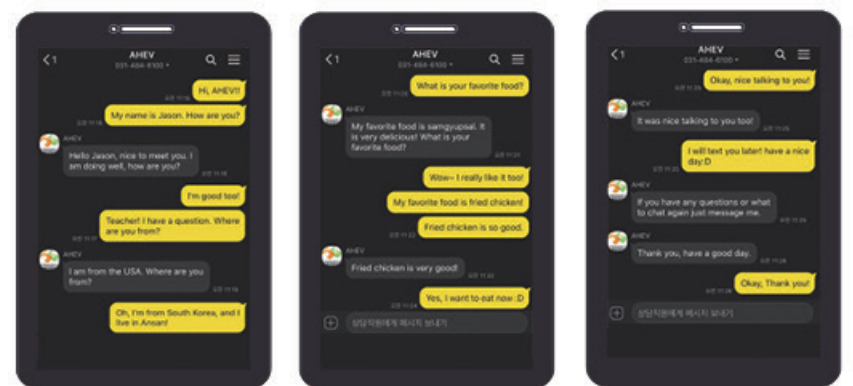
먼저, 어린이들은 안산화정영어마을 인스타그램 'team_ahév'를 방문해 영어마을 선생님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으며,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보고 따라 보면서 챌린지 형태로 참가해 재미있게 영어실력을 키울 수 있다.

유튜브 채널 'AHEV Library'를 통해서도 원어민 선생님이 읽어주는 영어동화책을 보며 따라 읽어봄으로써, 영어 독서의 흥미를 북돋고 학습 중 어려움이 생기면 원어민 선생님과 직접 카카오톡 1:1채팅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네이버카페 'ahévhere'에 영어회화 스터디 모임을 운영한다. 학습은 ZOOM을 이용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참여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관심 있는 성인 영어학습자들이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진영 안산화정영어마을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과 체험 활동이 어려워졌다. 어린이들의 영어 학습 공백을 메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참여형 온라인 학습 지원 콘텐츠를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원어민 선생님과 1:1 채팅 카카오톡 채널 'AHEV' 검색



를 개발하고 제공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안산화정영어마을 홈페이지(www.ahév.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산화정영어마을은 안산시가 설립하고 안산대학교가 운영하는 비영리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안산시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의욕고취 및 동기를 부여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문의 : 안산화정영어마을(031-484-6100)

대부도갯벌,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네트워크(EAAFP) 등재 2018년 람사르 습지 등록 이어 국제적으로 보존 가치 인정받아



대부도 갯벌에 찾아온 붉은어깨도요

안산 대부도갯벌이 경기도 최초 람사르 습지 등록에 이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네트워크(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EAAFP)에 등재됐다.

시청 제1회의실에서 5월11일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더그 왓킨스(Doug Watkins) EAAFP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해 대부도갯벌의 철새 서식지로서의 국제적 가치와 보존·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전 세계 9개의 철새 이동경로 네트워크 중 가장 많은 철새가 이동하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는 서해안에 위치한 대부도갯벌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도갯벌은 저어새, 알락고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검은머리물떼새, 큰뒷부리도요 등 국제적 멸종위기 종의 중간 기착지이자 철새의 보금자리로 중요한 서식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시는 대부도갯벌을 2017년 3월 국가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과 2018년 10월 람사르 습지 인증에 이어, EAAFP에 등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사전현장 실사 후 올해 1월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는 안산 대부도갯벌을 포함해, 철원평야(1997), 천수만(1999), 우포늪(2008), 금강하구(2010), 송도갯벌(2019) 등 16곳이 EAAFP에 이름을 올렸고, 세계적으로는 19개국 147곳에 총 면적 2천306만2천331ha가 등재돼 있다.

사무국은 철새의 중요한 기착지인 서해안 보전을 위해 한국·북한·중국 등과 공동사업을 진행 중이며, 아시아지역 국가를 포함해 37개 파트너들과 철새 이동경로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앞으로 멸종위기조류 서식지인 대부도갯벌 보호를 위해 생태계 복원 관리 뿐 아니라 인식증진 교육 홍보와 지역공동체 운영 등 습지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 방문의 해에 EAAFP 등재 소식을 전해준 사무국 대표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기도 최초로 등록된 람사르 습지인 대부도갯벌을 잘 보존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 서식지 관리에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2337)

소식通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꿈꾸는 시니어’ 참여자 모집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꿈꾸는 시니어’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무료를 일상 대신 적극적인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꿈꾸는 시니어의 주요 프로그램은 ‘역사’와 ‘음악’을 주제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안산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배우고 탐방하는 역사동아리와 ‘마을로 떠나는 인문학여행’과 핸드차임(톤 차임)이라는 악기를 배우고, 공연활동까지 할 수 있는 음악동아리 ‘작은 소리 음악단’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동년배 친구들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향상시키며 그 마음을 이웃과 나누고 싶은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문의 : 부곡종합사회복지관(070-4610-5775)

‘주택용 미니태양광’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5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예산 소진까지 선착순 지원



안산시와 안산환경재단이 주택에서도 전기를 생산해 사용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안산시 곳곳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다가구 주택의 주인 가구 외에 세입자도 주인 가구 동의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니태양광은 주택 옥상이나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설비로, 지난 2013년부터 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5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오는 11월 예산 소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거주 중인 아파트 베란단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한 정은주(초지동)씨는 “에너지 관련 일을 하는 지인의 권

유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됐다”며 “설치한 지 얼마 안 돼 아직까지는 에너지 절감을 못 느끼고 있지만 초기 설치비가 저렴하다보니,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했다는 박선영(선부동)씨는 “(미니태양광을)설치하면서 온열 기구를 많이 이용했는데, 전기 요금이 설치 전과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면서 “설치도 간단하고 자가발전 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고,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에너지 교육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기는 300W 설치를 기준으로 월 200kWh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3천340원, 400kWh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6천730원, 600kWh 사용 가정에서는 1만400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300W 설치 시 자부담은 13만7천600원이며, 설치 1~3년이면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2013년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첫 지원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천32건의 가정용 미니태양광이 보급됐다.

문의 : 안산시 에너지정책과(031-481-3912)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안산시, 2020년도

도로점용료 25% 감액

안산시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 등 4천 368명의 올해 도로점용료 25%인 7억4천여만 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조치한다. 지원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과 미납자의 감액재고지 등을 통해 부가액의 25%를 감액 징수할 예정이다. 신속한 감액 환급 진행을 위해 5월31일까지 감액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신청분에 한해 감면 조치를 해준다.

신청 접수는 안산시 대부개발과 기업지원과, 양구청 건설행정과 등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부서로 감액신청서와 통장사본을 팩스, 전자메일,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안산시 대부개발과(031-481-6996)
안산시 기업지원과(031-481-2096)
상록구 건설행정과(031-481-5356)
단원구 건설행정과(031-481-6423)



'단원의 도시'에서 김홍도의 예술혼을 이어가다

조선의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일생과 업적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사랑한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는 평민으로 태어나 어린시절부터 안산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조선시대 고가(古家), 청문당에서 스승 표암 강세황의 지도 아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안산에서 유년기를 보낸 그는 강세황의 추천으로 조선시대에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됐던 관청인 도화서의 화원이 됐다.

단원과 표암은 스승과 제자로 시작해 예술적 동반자로서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단원의 그림 평을 써주기도 하면서 나이와 지위를 뛰어넘는 친구관계를 평생 이어갔다. 정조의 신임 속에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은 김홍도는 후에 연풍(현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서 현감까지 지냈다.

김홍도는 산수, 인물, 도석, 불화, 화조, 풍속 등 모든 장르에 능했지만, 특히 산수화와 풍속화에서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다. 김홍도는 왕의 어진부터 촌부의 얼굴, 궁중행사 기록화에서 서민의 일상을 그린 속화까지 신분과 장르를 아우르며 그림을 그렸다. 그의 작품은 동시대와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조선시대 우리 문화와 역사를 살피는 귀중한 자료가 됐다.

안산을 대표하는 인물인 김홍도는 고단한 백성들의 삶을 해학적인 이야기로 한국의 정취가 가득한 풍속화에 녹여 낸 인간에 넘치는 최고의 풍속 화가다.

김홍도의 도시 안산에서 단원의 예술혼을 꽃피우다

안산시는 지난 199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단원의 도시'로 명명되었다. 안산시는 이후 김홍도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 그의 예술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단원의 작품과 안산에서 활동하는 예인(藝人)들의 작품들을 함께 수집해왔다. 또한 안산시민들이 시내 곳곳에서 김홍도의 작품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단원미술제와 김홍도축제(2018) 등을 열었고, 2013년에는 안산시 대표 미술관으로 꿈꾸는 단원미술관을 개관했다.

안산시는 '사슴과 동자', '화조도', '임수간운도', '대관령', '신광사 가는 길', '여동빈도' 등 김홍도의 작품 6점을 비롯해 그의 아들 김양기, 강세황, 심사정, 최북, 허필 등

의 고(古) 미술품 총 22점을 진품으로 보유하고 있다. 시 소유 진품들은 지난해 단원미술관에서 열린 안산시소장 진본전, '단원아회(檀園雅會), 200년 만의 외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안산시는 2002년 구청 신설 당시 시민 공모를 통해 '단원'을 구 명칭으로 지정해 사용 중이다. 안산시민들이 간직하고 있는 단원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단원미술관에서 안전하게 감상하는 김홍도의 작품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맞은 단원미술관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지난 5월19일부터 '부분 개방'과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재개관에 나섰다. 코로나19로 달라진 단원미술관의 관람 방법을 알아보자.

단원미술관은 우선 3관인 콘텐츠관만을 부분 개방하고, '단원아회, 200년만의 외출'(*영인본)을 무료 전시 중이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김홍도와 교유(交遊)관계에 있는 강세황, 심사정, 최북, 허필 등 안산시가 소유한 총 19점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매주 화요일 오전 단원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예약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개관운영 변동 가능성이 있어 주 단위로 예약을 받는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매일 오전 10시30분과 11시30분,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각 회차별 10명의 인원제한도 둔다. 관람객은 예약한 날짜에 미술관(3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해 관람자 명단과 개인정보 동의서

를 작성해야 한다. 전시 관람 중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발열체크와 손 소독 후에 입장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과 함께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영인본: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 복제한 인쇄물

단원 콘텐츠 전으로 즐기는 조선시대 천재 화가의 작품들

단원미술관 3관(콘텐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의 첫 번째 이야기 '雅: 단원과 표암'에서는 김홍도와 그의 스승 강세황의 작품을 전시해 안산시가 소유한 김홍도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사슴과 동자'는 안산시가 소장한 김홍도 작품 1호이자, 국보급 작품으로 사람과 동물, 자연을 한 폭의 그림 속에 담았다. '사슴과 동자'는 중국시인 소식(소동파)의 시 한 구절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산 중턱에서 동자가 사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산수화와 인물화의 맛을 고루 살린 천재화가 김홍도의 솜씨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會: 안산 아래 모이다'에서는 '균와아집도' 속 19세 청년 김홍도의 모습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균와아집도'는 18세기 조선시대 문화예술 중심지 안산에서 나이와 신분을 막론하고 서로 어울렸던 문인과 화가들의 풍류모임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이다. 김홍도와 강세황, 최북, 심사정, 허필 등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고향 안산의 품으로 돌아온 김홍도의 작품들과 그를 키우고 성장시킨 스승과 벗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를 놓치지 말자.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균와아집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슴과 동자'
(성호박물관 소장)

전 시 명: '단원아회, 200년만의 외출(영인본)'

관람일정: 2020.5.19.(화) 개관, 매주 월요일 휴관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예약(<http://danwon.ansanart.com>)

※ 사전예약제 매주 화요일 오전, 주 단위 예약오픈

위 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성포동)

문 의: 단원미술관(031-481-0510)

※ 사전예약기간, 개관일정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안산에서 오래된 사찰을 만나다, 화림선원과 쌍계사

도심 속 사찰로 떠나는 고요한 산책 화림선원(華林禪院)

화림선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으로 경기도 인정 전통 비구니 사찰이다. 고려시대에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화림선원은 그 사적(事蹟)과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다. 다만 고려시대에 중국을 오가던 사신들이 하룻밤 묵어가던 곳으로 구전되고 있다.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사찰이 국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일반 여행자를 위한 숙소인 원(院)의 역할을 겸하기도 했다. 이 사찰이 원의 역할을 겸했다면 규모가 큰 편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오랜 세월동안 절이 있던 곳으로, '절골'이라고 부르거나 탑이 많아 '탑골'이라고도 불렸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이곳의 탑들을 수탈해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흔적 없이 사라진 절터에는 농민들이 초가를 짓고 살았다. 지역민들에게 이곳은 절 주변 암벽에서 나오는 샘이 약이 된다고 해 약수암(藥水庵)이 있던 곳으로 알려졌고, 1938년 약수암이라는 절도 세워졌다. 1967년, 절을 보수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고 후에 이름도 화림선원으로 바꿨다. 화림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56억7천만년이 지난 후에 미륵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3회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의미이다.

화림선원은 대웅전, 약사여래좌상, 5층 석탑, 삼성각, 수각, 용화수, *선방, *요사 등을 갖추고 있다. 화림선원 뜰에 있는 약사여래좌상은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는 부처님의 온유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화림선원은 인근 산에서 나는 약재와 경내 돌 틈에서 흘러내리는 샘물이 다친 뼈에 좋다고 해 더욱 유명해졌다. 이 샘물을 보호하기 위해 대웅전 옆에 수각을 지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축대 밑에 반지하식으로 바위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는데 이 샘물을 용화수라고 한다. 용화수는 지금도 마르지 않고 물맛도 좋다.

도심 속, 조용하고 예쁜 화림선원에서 몸에 좋은 약수도 마시고, 약사여래좌상 부처님께 소원도 빌며 마음을 치유해 보면 어떨까.

*설법: 불교의 교의를 풀어 밝힘 / 선방: 참선하는 방 / 요사: 절에 있는 승려들이 거처하는 집

 위치: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140(일동) / 문의: 화림선원(031-419-2335)

다섯 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의 우물을 품은 쌍계사(雙溪寺)

대부도의 대금산 또는 쌍계산이라고 불리는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쌍계사. 이 암자에는 창건될 당시 전설이 전해진다. 옛날 한 스님이 잠이 들어 꿈을 꿔는데, 어느 우물에서 용 다섯 마리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것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스님은 큰 물 위에 산이 있고 그 산중에는 우물이 있던 꿈에서 본 장소를 기억해냈고, 대부도에 이르러 황금산 기슭을 헤매다가 꿈에서 본 우물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다. 이후 세워진 절을 '정수암(淨水庵)'이라고 부르고, 우물은 '용정(龍井)'이라고 이름 붙였다. 지금도 용정에서는 맑은 샘이 솟아난다. 훗날 절 부근에 물줄기가 돌이 있다고 해 쌍계사로 이름을 고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쌍계사는 삼성각, 극락보전, 요사채로 구성돼 있다. 부속건물도 2동이나 딸려 있다. 용 다섯 마리가 승천한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용정에는 용왕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용 바위 속에서 약수가 솟아난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약수가 피부병과 질병에 효험이 있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약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쌍계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정 보유 사찰이기도 하다. 쌍계사 극락보전에 있는 목조여래좌상(木造如來坐像)은 전체 높이 122cm, 불상 높이 92cm로, 좁은 어깨에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머리에는 소라 모양의 *나발이 촘촘하게 나 있고, 지혜를 상징하는 *육계가 높이 솟아 있으며 이마 위에 타원형의 중앙 계주와 정수리에 원통형의 정상 계주가 있다. 이 목조여래좌상은 2002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1호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쌍계사에서 보관 중인 현왕도(現王圖)는 지옥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저지른 죄를 심판하는 염라왕을 그린 불화(佛畵)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2호로 지정돼 있다. 극락보전에 봉안돼 있는 쌍계사 아미타회상도(阿彌陀會上圖)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0호로, 중생들에게 무한한 안락과 수명을 보장해 주는 아미타불 설법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현재는 불단에 가려 그림의 3분의 1밖에 볼 수 없다.

*도량: 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 / 나발: 부처의 머리털 육계: 부처의 정수리에 있는 뼈가 솟아 상투 모양이 된 것

김영미 명예기자_flowerym@hanmail.net

 위치: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171(대부동) / 문의: 쌍계사(032-886-2110)



화림선원 '수각'



화림선원 '약사여래좌상'



쌍계사 '현왕도'

“안 쓰는 물건은 나누고, 쓸모 있는 물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세요”

아름다운가게 안산중앙역점 개장 1주년,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에 동참하다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아름다운가게’ 안산중앙역점이 개장 1주년을 맞이했다. 아름다운가게는 물건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매장에서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한다.

아름다운가게 안산중앙역점에 기증을 하려면 운영시간(오전 10시30분~오후 8시)에 맞춰 매장을 방문하거나, 기증 물품이 3박스(우체국박스 5호 기준) 이상이면 방문 수거도 해준다. 아름다운가게에는 의류·미용 잡화, 도서·음반, 가전, 생활 잡화 등 판매가능한 물품을 기증할 수 있다. 물품 기증에 따른 기부영수증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물론 물품 상태

에 따라 기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반대로 매장을 방문하면 깨끗하게 정리된 다양한 기증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매장도 자원 활동가들의 힘으로만 운영한다. 누구든지 자원봉사를 원한다면 주 4시간 정도,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나미 매니저(아름다운가게 안산중앙역점)는 “지난해 문을 연 안산중앙역점 이전부터 고잔점을 운영해온 것이 벌써 16년이 됐다. 긴 시간 동안 안산에서 아름다운가게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지난 1년은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현재는 자원봉사자도 다양해졌고, 고객과 기증자들도 멀리서 찾아오는 등 하루 평균 150명의 고객이 이곳을 방문하고, 평균 20명 이상의 기증자들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써주시는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안산에 아름다운가게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름다운가게 안산중앙역점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차단을 위해 매장 소독,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가게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주어진 생활안정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문의 : 아름다운가게 안산중앙역점(031-414-3530)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우리 동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행복마을지킴이가 있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 도움을 주는 영화 속 ‘홍반장’처럼 우리 마을에도 마을지킴이가 있다면? 마을 주민들의 이런 바람을 담아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다. 아파트가 단지 내 입주주민을 위해 관리사무소가 꼭 필요하듯, 행복마을관리소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아동·노인 돌봄, 택배보관, 공구대여,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입된 일종의 동네관리소다.

안산에서는 2018년 월피동 광덕지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그동안 월피동과 일동에서 행복마을관리소 2개소를 운영해왔다. 홀몸어르신 돌봄과 어르신 케어, 집수리, 실버미술, 유튜브 제작, 아·미용 서비스, 가사지원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범적인 운영실적을 인정받아 ‘2019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우수 추진 시·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올해 4월에는 단원구 와동에 안산시 세 번째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와동 행복마을관리소’가 문을 열었다. 와동 지역은 대표적 구도심 지역이자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행정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수요가 많아 주민을 위한 상시적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지역 중 한 곳이다.

이번에 문을 연 와동 행복마을관리소는 ‘(새)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공제회 좋은 이웃’ 내 공간을 리모델링해 행복마을관리소 사무실을 꾸렸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 등 11명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로 나눠 근무하고 있다.

행복마을지킴이는 ▲안심귀가 및 아동 등·하교 서비스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화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순찰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지역 정화활동 ▲도로·건물 등 위험 요인 발굴 및 시정 요청 ▲간단한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상가와 공공지역 방역활동에도 기여했다.

이성미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직원은 “마을지킴이들의 방역활동에 고마워하며, 정기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사장님도 계셨다. 마음만 감사히 받았지만 주민들의 그런 모습에 마을지킴이들이 무척 감동하고 힘을 얻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돌봐줄 가족 없



이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 중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 침침한 실내등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방문해 전등을 교환하고, 몇 년째 먼지가 쌓인 창틀 청소도 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해 반찬을 전달하기도 했다. 마을관리소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던 한 어르신의 말씀이 깊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지킴이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일자리 제공 등 효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산시 행복마을관리소

월피동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상록구 광덕산안길 20, 1층·3층)

일동 - 우리동네연구소퍼즐협동조합 내(상록구 성호로 26, 3층)

와동 - (새)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동체 좋은이웃 내(단원구 삼일로 449, 3층)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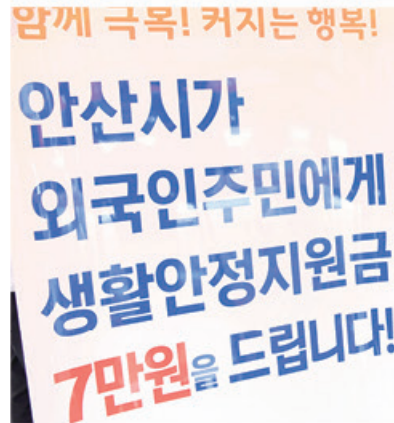
운영시간 :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말, 공휴일 휴무)

활동시간 :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 (주말, 공휴일 휴무)

문의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481-8942)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소개합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하는 안산 통합과 상생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안산시는 100개국 이상에서 온 8만8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며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다문화 중심도시이다.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설치해 한국어 교육, 통역지원, 생활상담 지원,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원구 부부로 43(원곡동)에 위치한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외국인 주민이 더불어 잘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안산시의 외국인 지원 전담 행정기관으로 2008년 문을 열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안산다문화마을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기반조성을 위해 외국인민간협의회, 외국인 주민공동체 대표자 회의 등도 열고 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이들의 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역할,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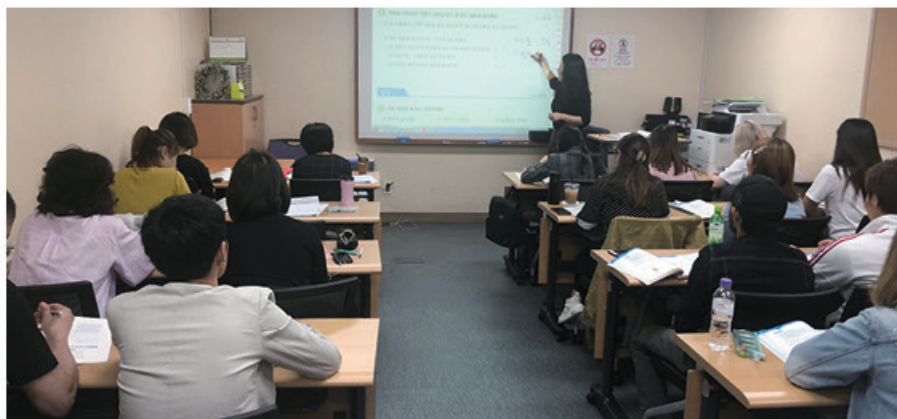
전국 최초 외국인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전담창구 운영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소득과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내국인 주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외국인 주민에게는 1인당 7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안산시는 시내 거주하는 100개국 이상 출신의 외국인 주민의 지원금 접수를 위해 총 11개 언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제작했다. 또 중국어와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가 가능한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한 외국인 주민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다문화특구 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3층 다목적실에는 원곡동 거주 외국인 주민과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원곡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7월 말까지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다. 주말과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문의 :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您好

답답할 때는 모국어로 상담 가능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고충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고 싶을 때,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어디로 가야할까? 바로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있는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다.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무려 11개 국가의 통역 상담원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의 한국 생활 중 겪는 의사소통, 취업, 생활 고충 등의 어려움을 모국어로 통역 상담하며 지원한다.

기본적인 생활정보는 물론, 임금과 퇴직금, 사업장 갈등, 산업재해 등 무료 노무 상담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고충을 덜어준다. 또한 체류 지원, 의료 지원,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 등도 받을 수 있다.

문의 :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1644-7111)



외국인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원곡보건지소

낯선 이국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보다 고통스럽다.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안에는 외국인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원곡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다. 단원보건소 원곡보건지소는 외국인과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며, 외국인 주민에게 무료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일에는 지역주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진료와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일요일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안산시한의사회, 안산시의사회, 안산시약사회,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의료자원봉사단이 참여해 무료 진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외국인 건강검진 서비스와 외국인 전염병 예방 관리 프로그램,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진료 서비스 등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원곡보건지소(031-481-6833)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 한국어 교육 제공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언어와 문화는 큰 장애물이다.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누구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평일과 주말에 나눠 기초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위탁기관을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인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도 실시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시 귀화신청, 영주자격 신청, 체류자격 신청 등에 혜택을 주고 있다.

문의 :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과(031-481-3297)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도심 속 숲 체험부터 대부도 갯벌체험까지! 건강하게 놀자!



도심 속에서 즐기는 유아 숲 체험 “매들아 ~ 여름 숲 여행가자!”



도심 속에서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숲 속을 걷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할까? ‘집콕’에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어른과 아이 모두가 좋아할 숲 체험과 산림욕을 즐기러 안산 부곡산림욕장의 유아 숲 체험원을 방문해보자.

안산 부곡산림욕장은 시민들을 위한 산림 체험 공간을 넓히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욕장으로, 지난 2018년 11월 문을 열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유아 숲 체험원과 삼림욕마당, 잔디

광장, 휴게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이중에서도 유아 숲 체험원은 아이들을 위한 ‘사계절 자연 놀이터’로 큰 인기를 끈다. 밭줄 매달리기, 외줄건너기, 나무 조각 교실, 동지교실, 출렁다리, 숲 속 인디언 집, 군형 놀이대, 나무탑 오르기, 나무더미, 그물망 오르기, 곤충 호텔 등 숲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 시설들이 가득하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유아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숲 해설가가 함께 숲 속 산책에 나서며,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동식물들을 관찰한다. 또 ‘열매의 여러 가지 색깔과 맛’, ‘땅속 생물 관찰하기’, ‘나무 정원 만들기’ 등 매달 다른 주제를 선정해 ‘자연물감 만들기’, ‘흙으로 그림그리기’, ‘두꺼비집과 모래성 만들기’ 등의 다양한 놀이 활동도 펼친다. 6월, 도심 속 숲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오는 12월까지 예정된 유아 숲 체험의 월별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거나 체험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체험일정: 6월(예정) ~ 12월 주중

체험장소: 부곡산림욕장(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산5-1)

신청대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단체 5~7세 유아
(최대 20인 이하)

신청방법: 전화상담 후 선착순 예약

문의: 푸른숲(031-769-7544)



역사와 전통문화 체험은 안산향토사박물관에서 즐겨요!

초가집에서 배우는 세시풍속 체험 수업

안산 향토사박물관에서 농경사회 조상들의 지혜와 생활문화를 세시풍속 놀이를 통해 알아보는 유아 체험수업을 준비했다. 안산문화원 안에 있는 전통 초가집에서 정월 대보름, 단오, 추석 등 세시풍속을 재미있는 놀이로 쉽게 배울 수 있다.

유아 체험수업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세시풍속을 이해하고, 전통문화와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전문 강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시풍속 관련 그림책을 읽어주고, 지계를 이용한 신발 나르기과 돼지씨름 등의 몸 놀이, 버선가방과 탈 만들기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조상들의 농경생활과 세시풍속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자.



소금 설화를 찾아 떠나는 꼬마탐정들의 여름 프로젝트

소금설화를 찾아 초등학교생들이 꼬마탐정으로 변신한다. 이번 체험프로그램 수업에서 학생들은 안산에 전해 내려오는 소금장수 이야기를 주제로 대부도 답사를 떠난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체험 수업은 전문 강사와 함께 모둠 수업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생들이 직접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 설화를 재구성하고, 이를 책으로 만들어 볼 예정이다.

또 소금 놀이를 통해 나에게 맞는 입욕 소금을 직접 만들어보고, 실제 생활에서 소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아본다. 수업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이 소금원정대가 되어 어촌민속박물관으로 답사를 떠나며 체험을 마친다.



조상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여름’ 전통 문화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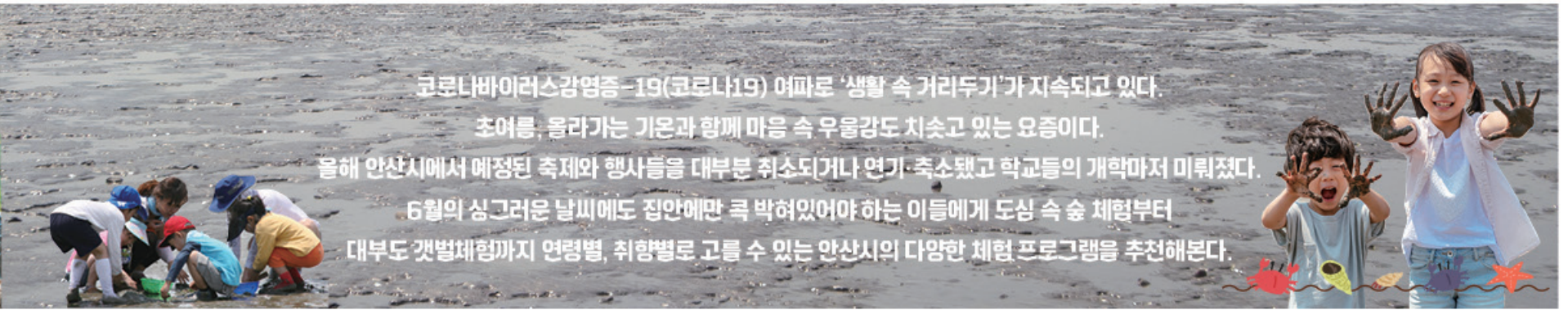
온 가족이 모여 전통 방식으로 조상들의 여름 생활을 배워보는 주말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향토사박물관에서 준비한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여름나기를 실천해 볼 수 있다.

향토사박물관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전시된 농기구들에 대한 전문가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이어 맷돌 돌리기와 다듬이질 등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또 콩국 만들기과 유두절(음력 6월15일이며 유두날이라고 불리는 세시풍속) 구슬 팔찌 만들기, 전통물총 만들기, 초가집 마당에서 시원한 물맞이 체험 등 온몸으로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다.

위치: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44(사동)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 체험프로그램은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연기 혹은 취소될 수 있음

향토사박물관 체험프로그램	프로그램일정	신청대상	신청방법	문의 및 접수
세시풍속이야기	7월(평일 오전)	유아단체(6~7세)	전화접수(6/29~)	안산문화원 031-415-0041
꼬마탐정 설화를 풀다	8월(평일 오후 · 주말 오전)	초등단체(1~3학년)	전화접수(7/1~)	
슬기로운 조상들의 여름생활	8월(주말 오전)	가족(보호자동반)	전화접수(7/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다.

초여름, 올라가는 기온과 함께 마음 속 우울감도 치솟고 있는 요즘이다.

올해 안산시에서 예정된 축제와 행사들을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축소됐고 학교들의 개학마저 미뤄졌다.

6월의 싱그러운 날씨에도 집안에만 꼭 박혀있어야 하는 이들에게 도심 속 숲 체험부터 대부도 갯벌체험까지 연령별, 취향별로 고를 수 있는 안산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본다.



청정 섬 대부도에서 펼쳐지는 이색 승마 체험



대부도하면 대부해솔길과 갯벌체험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올 여름에는 이색적인 승마 체험이 어떨까? 안산시 대부남동 말부흥지역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최상등급의 승용마를 조련시킨 승마시설이 있던 곳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이곳에서 말 568필과 전문 인력 839명이 상주하며 훈련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유서 깊은 이 지역에 자리 잡은 '베르아델 승마클럽'은 승마 역사와 명마(名馬)들의 말발굽 소리가 살아 숨 쉬는 세계 수준의 승마교육장이다. 실내승마장, 야외승마장, 클럽하우스, 펜션, 캠핑 존, 야외 물놀이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원형 돔 실내승마장 등은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촬영도 이뤄졌다.

베르아델 승마클럽 입구에 들어서면 사계절 내내 승마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골든 돔과 승마역사관이 있는 클럽하우스, 캠핑 존 등이 눈에 들어온다. 골든 돔에서는 안전교육을 받은 후 전문 강사와 함께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 승

마역사관에서는 국내·외 마구와 조각 등 승마와 관련한 물품과 자료들을 관람할 수 있다. 또 체험승마(실내, 외부 승마, 재할승마, 맞춤 레슨 등 초·중급별로 체험 코스도 선택할 수 있다.

체험 승마 프로그램은 6~7세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체험 시간은 20분(레슨 포함), 비용은 3만원이다. 안산시청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평일 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체험장소: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376(대부남동)

신청방법: 전화예약, 현장접수

문의: 베르아델 승마클럽(032-882-2255)



내 손으로 잡아보는 꼬물꼬물 게와 조개 대부도어촌마을 갯벌체험



슈퍼 카와 트랙터를 타고 갯벌을 달려보자! 선감어촌체험마을

선감어촌체험마을에 가면 슈퍼 카와 트랙터를 타고 갯벌을 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선감도 넓은 갯벌에서 아이들도 안전하게 해양생태계를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선감어촌체험마을에서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갯벌 체험 중 6월 한 달 동안 조개잡이 체험이 진행된다. 갯벌 체험장까지 3.4km의 거리를 트랙터를 타고 이동하며, 동네 어르신이 체험안내자로 동행한다. 체험장에는 세족장과

온수 샤워실, 탈의실, 매점 등 편의 시설도 갖춰져 있다. 바로 옆 캠핑장에서 캠핑도 즐길 수 있다.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갯벌 체험은 전화상담 후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물때 시간 등 갯벌체험의 자세한 내용은 선감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www.선감어촌체험마을.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부해솔길 트레킹과 즐기는 갯벌 체험 종현어촌체험마을

대부해솔길 1코스를 걷다보면 보이는 구봉도 종현어촌 체험마을도 갯벌 체험 장소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안산시의 체험 마을 개장 시기를 조율 중이지만, 6월 갯벌 체험 운영을 준비 중이다. 종현어촌체험마을에서는 체험객이 직접 걸어서 체험장으로 이동한다. 올해부터 코끼리 열차는 운영하지 않지만, 시간제한 없이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다. 대부해솔길 트레킹과 함께 즐겨도 좋다.

체험은 홈페이지(www.종현어촌체험마을.kr)에서 체험 마을 개장 여부와 물때 시간 등을 확인한 후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20인 이하일 경우 예약없이 현장 체험도 가능하다.

누에섬에서 감상하는 아름다운 일몰 탄도어촌체험마을

탄도어촌체험마을에서 누에섬으로 가는 신비한 바닷길이 열리면 양옆으로 널따란 갯벌 체험장이 나타난다. 이곳은 탄도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 중인 갯벌 체험장으로, 조개잡이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장 인근에는 탄도항과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누에섬 등이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갯벌체험 전 후에 누에섬 둘레길과 해안 산책로를 따라 서해안의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는 것도 추천한다.

체험은 제한시간이 없으며, 탄도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www.tando.or.kr)에서 물때 시간을 확인한 뒤 전화로 예약하거나 현장 신청할 수 있다.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갯벌체험	체험비 (호미, 바구니제공)		장화대여비	체험시간	신청방법	위치 및 문의
	성인	소아				
선감어촌마을	1만원(중학생이상)	7천원(24개월이상)	성인2천원 / 소아1천원	2시간 소요	전화예약	단원구 개건너길 95-2(032-886-6133)
종현어촌마을	1만원(중학생이상)	6천원(24개월이상)	2천원	제한 없음(물때시간확인)	전화예약 / 현장접수	단원구 대부항금로 5-14(032-885-3745)
탄도어촌마을	1만원(중학생이상)	8천원(24개월이상)	체험비포함	제한 없음(물때시간확인)	전화예약 / 현장접수	단원구 구봉길 240 (032-886-6044)



대부도의 유일한 골프장. '아일랜드 컨트리클럽(아일랜드 CC)'은 대부도의 숨어있는 명소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몇 번이나 KPGA(한국여자프로골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는 아일랜드 CC는 27홀의 모든 코스에서 바다가 보이는 경치를 자랑한다. 이로 인해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촬영지로 유명한 것은 물론, 각종 연회와 기업모임, 채플 웨딩 등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아일랜드 CC를 가기 위해 시화방조제를 지날 때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훌륭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서해의 아름다운 낙조는 놓칠 수 없는 절경이다. 섬에 위치한 덕분에 해상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로 자연 에너지도 충전할 수 있다.

이곳을 자주 들른다는 한 방문객은 "주변경관이 좋고 수도권 서쪽에 위치한 골프장이 드물다보니 사람들과 자주 온다. 다양하게 설계된 골프 코스의 느낌도 좋은데다, 모든 홀마다 바다가 보여 가슴이 탁 트인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CC는 지역사회 기부 활동도 활발히 한다. 노인인구집중 지역이었던 홍성리 마을에 부족한 복지시설을 기부하며, 경로휴게실과 마을회의실, 주방, 샤워실 등을 갖춘 마을회관과 경로당 세워 지난해 1월 개관식을 가졌다. 지난 2007년 설립한 아일랜드 장

학재단에서는 매년 대부중고등학교와 배곧중학교의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일랜드 CC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 출신 인력을 정직원과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등 대부도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도 서남부 지역과 아일랜드 CC 인근 바닷길을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개통되면서 골프장과 펜션 등 휴양시설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또 시화방조제에 위치한 시화나래휴게소의 달 전망대, 대부해솔길, 구봉도 낙조전망대, 시화호 조력발전소, 대송습지 등 주변 볼거리도 풍성하다.

대부도 갯벌은 2017년 3월 국가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과 2018년 10월 람사르습지 인증에 이어, 2020년 5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네트워크(EAAFP)'에 등재되면서 꼭 방문해야 할 장소가 됐다. 2020년 '안산방문의 해'를 맞아 그동안 몸과 마음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고 싶은 이들에게 아일랜드 CC를 비롯한 대부도 내 관광명소 방문을 추천한다.

문의 : 아일랜드㈜ (032-884-1004)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주변 가볼만 한 관광지

구봉도 낙조전망대

안산시 대표 낙조 명소인 구봉도는 봉우리가 아홉 개가 있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대부도 북단에 위치한 구봉도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와 대부도의 비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구봉도 앞 바다에 솟은 두 개의 바위는 '할배 바위'와 '할매 바위'로 불린다. 두 바위 사이로 보이는 석양은 서해안 최고 절경을 이룬다. 이곳에 있는 낙조전망대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일몰과 노을빛을 형상화한 조형물 '석양을 가슴에 담다'는 대부도 최고의 포토존이다.

위치 : 안산시 단원구 구봉타운길 43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화방조제에 지어진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로 활약 중이다. 2004년 공사에 착수해 7년만인 2011년 8월부터 일부 전력 생산에 들어갔으며, 세계 유수의 기관과 단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안산시 대표 관광지이기도 하다. 발전소 옆에 시화나래조력공원이 조성되면서 서해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달 전망대와 식당, 카페 등이 마련됐다. 주말 오후 2시~5시에는 주변 도로의 차량 정체가 심하니 이 시간만큼은 피해서 방문해보자.

위치 :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길 1927



대송습지

철새와 갈대의 보금자리이자 안산지역 생태관광 명소로 관심 받고 있는 대송습지는 시화호 남측에 위치한 조류 관찰지다. 해마다 20만여 마리의 철새가 도래하며, 겨울에는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 13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한다.

대송습지는 겨울철새에게 중요한 휴식처이자 먹이 공급원이다. 습지보전 노력을 통해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의 먹이 제공 장소가 됐다. 대송습지의 생태 가치를 높이 평가한 환경부는 2014년,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했다.

위치 : 시화호 남측 일대



INTERVIEW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학습이다”

최라영 관장 (안산시평생학습관)

학습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 낸다. 어떤 일의 성취나 성공의 지름길로 학습만 한 게 없고, 사회발전과도 직결된다. 안산시는 2006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고, 2012년 상록구청 동남쪽 현재 자리에 안산시평생학습관을 세웠다. 최라영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수탁운영 중인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평생교육 전공교수로 학습관을 이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강좌를 폐강하거나, 비대면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등 달라진 일상을 보내고 있다. 다음은 최라영 평생학습관장과와의 일문일답.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부터 안산시평생학습관 3대 관장 직을 맡고 있다. 학부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석·박사 과정에서 평생교육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인적자원개발)를 전공했다. 안산대 교수 이전엔 수원시와 평택시에서 평생교육사로 활동했으며, 평생교육총연합회 사무총장, 평생교육사협회·평생교육학회·성인교육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Q. 5월부터 시행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학교들도 늦게 개학을 하고, 학생들을 맞이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은 어떤 상황인가?

정규강좌는 현재 상반기 강좌가 폐강된 상태다. 강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다채움 강좌만 6월 둘째 주부터 개강한다. 문해 교육인 한글교실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말하지만 성인학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서, 학습지를 이용한 과제중심 수업을 하고 있다. 학습자분들이 졸업을 하고 학력을 보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할 계획이다.

Q.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학원이나 문화센터의 취미강좌를 지양하는 평생학습관은 학습공동체 확장이 비전이고, 목표다.

그 일환이 ‘길거리학습관’이다. 코로나19로 이미지도 모두 중단된 상태다. 큰 호응을 얻은 ‘제3기 인생대학’의 수료생들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외부 공모전에서 입상도 하고, ‘강사’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해 연극 수업은 올해 뮤지컬로 확장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의 교구제작 자격증반, 마을모이공작단도 훌륭하다.

6월 9일부터는 8회 차로 안산도시공사 사내코치와

지역역사학자, 소통전문가가 시민의식·친절·공감·지역역사·소통을 주제로 직업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과정 수료자가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이 부여되는 지역 일자리 맞춤형 교육이다. 올해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차이 없는 클래스 한국어교실’과 이주민 본국의 전래동화를 소개하는 동화책 만들기가 신규 사업으로 기획됐다.

Q. 평생학습관 관장으로서 어려움과 보람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프로그램을 꾸리다 보니 강사들의 재능 기부에 기대는 다채움 강의가 많다. 시민이 원하는 폭 넓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 평생교육 추진 체계도 광역 진흥원으로 확대돼 공모사업 받기가 수월하지 않다.

평생교육에 입문한지 20여년이다.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학습이라고 생각한다. 평생학습관에서 학습자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보람이고, 행복이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다시 학습자분들로 넘쳐나는 평생학습관을 기대해 본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최라영 관장



신중년 일자리 시리즈

영상제작자, 1인 미디어시대의 섯별

“낯설음 극복하면 5060 신중년 세대도 할 수 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수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거대 방송사다. 시청자가 수천억 명에 이르면 방송 기획안을 쓰는 사람도 작가·PD도 없다. 모든 영상물은 전 세계 1인 미디어들에 의해 제작돼 제공된다. ‘화장실 번기 뚫기’ ‘열쇠공 부르지 않고 잠긴 방문 열기’ ‘무르지 않는 오이 소박이 맛있게 담기’처럼 기존의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생활정보부터 ‘방탄소년단 공연 실황 중계’까지 수많은 이들의 손에서 탄생한 콘텐츠가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담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

이계곤(65·본오동)씨는 은퇴 후 IT·동영상 제작으로 인생2막을 열었다. 그의 안내를 받아보자.

Q. 동영상제작, 중년세대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 아닌가요?

아니다. 어렵다는 말의 이면에는 낯설음이 있다. 사람도 맨 처음 대할 때는 낯설어 어렵고 긴장되지 않는다. 동영상제작도 똑같다.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새로운 일에는 어려움을 느끼듯이 어렵게 느껴질 뿐이다. 눈 뜨면 모든 게 새로운 아이들은 낯설음을 어려

움이나 호기심으로 바꿔 사물을 빨리 배운다. 지금의 5060세대는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신(新)중년 세대다. 성능 좋은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어렵지 않게 편집도 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쉽다.

Q. 동영상제작은 언제 시작했나요?

2013년 안산시평생학습관 시니어동영상제작 프로그램에서 처음 동영상제작에 입문했다. 이때 나의 컴퓨터 실력은 막 걸음마를 댄 초보 수준이었는데 연세가 높은 신(故)황영자 선생님께서 동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 앞산의 바위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끄덕일 정도로 쉽게 알려주셨다. 이때의 경험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안산시 정보화교육 강사로 컴퓨터 수업을 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Q. 이후 동영상 공부를 계속하셨나요?

동영상제작은 할수록 재미있고 쉬워진다.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2016년 방송통신대학 미디어영상학과 진학은 그렇게 이뤄졌다. 4년을 즐겁게 공부하면서 방



영상제작자 이계곤 씨

송통신대 경기지역 영상동아리 ‘칸베베’ 회장으로 활동도 했다. 동아리 회원들과 단편영화·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해 각종 공모전에 출품하고 상금도 꽤 탔다.

Q. 영상제작자로서 비전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동영상 촬영·편집은 기술이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 예술이 되면 1인 미디어로서 성공할 수 있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Smishing)’ 사기범죄 조심하세요!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 있다면 바로 ‘삭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범죄도 급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낚시하다’는 뜻을 지닌 피싱(P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타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범죄 수법을 말한다. 악성 앱(App)과 불법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배포한 후, 이용자의 접속을 유도해 악성코드를 심고,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일반적으로 택배회사나 인터넷 쇼핑몰을 사칭하던 스미싱 범죄가 최근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해 전국에

서 발생하면서 관련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Web발신]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http://000.00/000000>’와 같은 형태로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 링크를 보내는 수법이다.

만일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할 경우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저장된 연락처나 사진, 공인인증서 등 개인·금융정보가 범죄자에게 노출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스미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나 카드사의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 링크가 포함돼 있지 않다. 절대로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인터넷주소가 있으면 열기 전에 확인하는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받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폰 ‘설치 제한’ 기능을 통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기기는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관리’ 경로를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에 체크(√)

표시가 돼 있을 경우 이를 해제하면 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고, 각종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아이폰은 ‘설정→개인정보보호’ 경로로 들어가 위치 서비스와 연락처, 사진, 카메라 등 항목별로 접근 권한을 갖는 앱이 무엇인지 살핀 후 출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기능을 해제하면 된다.

셋째, 스마트폰 내부에 은행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에 휴대폰 통신사 상담을 통해 소액 결제 한도를 하향하거나 결제를 미리 제한해 둔다면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스미싱 문자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했거나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비밀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말고 즉시 해당 앱을 삭제해야 한다. 만약 이미 송금, 이체를 완료한 경우라면 경찰(112), 경찰민원콜센터(182),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악성코드 제거 방법을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스마트폰이 감염됐을 경우 국번 없이 118(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daum.net

“우리 같이 놀아요!” 아무놀이 챌린지·집콕 챌린지

집에서도 유쾌하게! 놀이가 넘쳐난다!



여름을 앞두고 더워지는 요즘, 날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집에만 ‘콕’ 박혀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른도 지쳐가는 ‘집 콕’ 생활에 아이들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집에서도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 ‘아무놀이 챌린지’와 ‘집콕 챌린지’ 등 놀이 이벤트가 뜨고 있다. 집에서도 유쾌하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집 콕 놀이’ 방법을 소개한다.

‘혼자서도 잘 노는 법’



집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한동안 여행을 가지 못해 갑갑한 사람들에게 ‘방구석 여행 챌린지’를 추천한다. 여행을 주제로 한 영화를 추천하는 놀이

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행지를 감상하며 여행 리스트를 작성해보는 것도 좋다. 지난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상상을 해보자. 또는 집 베란다를 캠핑장으로 꾸며 ‘하우스 캠핑’을 즐겨도 좋다.

디저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동안 해보려고 휴대폰에 저장해두기만 했던 레시피를 꺼내보자. 채소와 과일을 일정한 비율로 갈아먹는 간단한 셰이크부터 커피, 쿠키, 빵, 마카롱 등 나만을 위한 디저트를 즐기자. 최근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달고나 커피 만들기도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 충분하다.

‘아이와 함께 집에서 놀기’

육실을 작은 낚시터로 만들어보자.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모양의 종이 물고기를 만들어 자석을 붙이고, 욕조 안으로 풍당 빠뜨려보자. 욕조에 넣을 종이 물고기를 어떤 모양과 크기로 재미있게 만드느냐에 따라 놀이의 몰입도가 달라진다. 긴 막대에 실을 연결하고 그 끝에 자석을 묶어 낚시대 하나를 똑딱 만든다. 욕조 안에 넣어놓은 종이물고기를

잡아 올리며 ‘낚시 놀이’를 즐겨보자.



포장 테이프를 벽과 벽 사이에 길게 붙이고,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놀이를 해보자. 일명 ‘매트릭스 놀이’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테이프로 만든 줄을 요리조리 피해보면서 몸을 움직이자. 늘어지는 오후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 테이프는 열심히 놀다가 뜯어버리면 되니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종이컵 쌓기’도 5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의외로 훌륭한 놀이가 된다. 컵을 쌓았다가 허물어버리기를 반복하면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상상력을 자극시킬 수 있다.



재활용품을 이용해 장난감을 만들어보자. 다 먹고 남은 우유팩부터 종이박스, 휴지심 등을 모아 동물가면이나 꽃을 만들 수도 있다. 아이와 상상력을 발휘해 유쾌하게 놀아보자.



초성게임이나 끝말잇기도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대표 놀이다. 어휘력 향상에도 좋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다. 놀이를 통해 모르는 단어도 배우고, 지루함도 달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시민기자가 간다!

마을을 대표하는 생생마을기자단, 초·중·고·대학생으로 이뤄진 학생기자단, 특색있는 글솜씨를 가진 SNS시민기자단이 전하는 안산시의 생생한 소식. 안산시 시민기자단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기사제목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롱뇽이 살고 있는 성태산으로 가요~

성태산은 정상에 오르면 안산시가 한 눈에 들어오고 너구리봉을 지나 수암봉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2년 성태산을 산책하던 일동 주민이 우연히 작은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웅덩이가 멸종 위기에 도롱뇽 자연 서식지라는 것을 알게됐고 주민들의 생태보전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도롱뇽 서식지와 성태산 조사기록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생태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기획한다.

• 권성혜 생생마을기자



단원산책숲길 1경 봉황산 정다운 숲길

단원산책숲길 1경인 봉황산 정다운 숲길 산책코스는 와동체육공원을 출발하여 안산중앙교회 옆 주택가로 도착합니다. 코스는 와동체육공원→다충식재림→진달래동산→숲속 오솔길→향기 쉼터→체력단련시설→조팝나무 길로 봉황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입니다. 봉황산은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봉황산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본래 이름은 봉지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 이금순 SNS시민기자



안산 호수공원 꽃 나들이 이름이 뭐니?

실내체육시설보다 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 요즘, 호수공원에 가면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호수공원 내 식물들이 예쁘게 자라고 있어 식물 이름을 궁금해하는 시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철쭉, 이팝나무, 모란, 팬지꽃, 마가렛, 불두화, 라일락, 튜립, 꽃창포, 죽단화 등 호수공원에 살고 있는 식물사진도 보고 꽃말도 배워가세요.

• 전지환 SNS시민기자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 대부도 점농어 방류 행사

수산종자 방류는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하는 행사인데요, 육도와 대부도 해역에서 잘 자라는 5개 품종(조피볼락, 넙치, 점농어, 대하, 꽃게)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 행사를 위해 준비된 배는 3척입니다. 안산시호, 왕왕호, 대부 서해호 중에 저는 안산시호를 타게 되었어요. 오늘은 점농어 치어를 방류한다고 합니다. 방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생하게 전달해드릴게요.

• 이에은 학생기자



2020 K리그 개막! 안산그리너스FC 시즌권 개봉 후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주춤해지면서 5월 9일, K리그가 재개되었습니다. 안산그리너스FC는 5월 10일 일요일 FC안양과의 원정경기를 기분 좋게 승리로 시작했는데요. 시즌권은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치러지는 안산그리너스FC의 경기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올해는 시즌권 패키지에 노트, 렌야드 등 더욱 알찬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올프론 성인권을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하루 빨리 정상적인 경기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남국 학생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달고나커피, 제티초콜릿 만들기 도전!

코로나의 종식은 시민들의 협조로부터 온다는 사실! 저도 이에 동참하고자 일을 나갈 때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착실히 실천 중입니다. 워낙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던 중 유튜브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달고나 커피'와 '제티 초콜릿'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만드는 과정, 함께 보러 가실까요?

• 손현지 학생기자



상록구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사동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에게 복지카드·통장 전용지갑 제공

사동행정복지센터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다운로드' 지급 시 카드나 통장 보관을 위한 휴대용 손지갑을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에게 제공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와 안산다운카드를 통해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사동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 중에서 각종 복지카

드나 통장의 분실로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와 재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4월 27일부터 7월말에 걸쳐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다운로드' 지급 시 카드나 통장 보관이 용이하고 분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손지갑을 제공하게 됐다.

이정숙 사동장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각종 복지카드나 통장을 여기저기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깜박 잊어버리고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와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처럼 카드나 통장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지갑을 나눠드리면 분실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의 : 사동행정복지센터(031-481-5457)

사이동

안산시 사회복지공무원의 아름다운 선행

몸이 불편한 독거 할머니를 친어머니와 같이 성심성의껏 돌보며 사비를 들여 보행기를 선물한 공무원이 알려져 화제다. 사연의 주인공은 안산시 사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성필 주무관이다.

정 주무관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 할머니의 집을 방문해 사비를 들여 보행기를 선물하고 청소 등의 집안일을 돕고, 병원 안내와 같이 할머니가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적극 해결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선물 받은 보행기를 방 안에서 끌고 다니며, 모

처럼 함박웃음을 지으며 아들과 같이 챙겨주는 정 주무관의 선행에 감사를 전했다.

정 주무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찾아보고 도움을 드리는 복지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며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퇴근시간 이후에도 소외계층을 보살피며 묵묵히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정 주무관의 투



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은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문의 : 사이동행정복지센터(031-481-5645)

월피동

어버이날 맞아 '카네이션(카네이션+새싹인삼)'으로 감사의 마음 전달

월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독거어르신 50명에게 반찬 후원 및 '카네이션(카네이션+새싹인삼)'을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7일 진행된 행사는 월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사랑찬 사업의 일환으로 반찬을 후원하고, 월피맑은샘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영구 위원이 작년에 이어 어르신들에게 감사(카네이션)와 건강(2년근 새싹인삼)을 기원하는 카네이션을 후

원해 선물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홀로 외롭게 보낼 줄만 알았던 어버이날, 맛있는 반찬과 함께 카네이션 등 뜻깊은 선물을 받게 되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조서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작은 마음과 정성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뜻깊고,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 월피동행정복지센터(031-481-5409)



해양동

코로나19 극복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해양동행정복지센터는 통장협의회,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5월11일 실시한 대청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한양대학교 앞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도 진행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구석구석 방치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거해 깨끗한 환경 조성애 앞

장섰으며, 상가 및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홍보했다.

조현선 해양동장은 "주변 청결과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여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코로나19를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동행정복지센터(031-481-5464)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와동

“극복해요 코로나19, 함께해요 와동 마스크!”



와동주민자치위원회는 면마스크 2장과 교체용 필터 15개로 구성된 면마스크 세트를 제작해 시립와동어린이집과 관내 3개 초등학교에 배부하기 위한 전달식을 개최했

다. 준비된 면마스크 250세트는 시립와동어린이집과 관내 초등학교(화랑초, 덕인초, 와동초)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총 250명의 아동에게 각 1세트씩 전달된다.

와동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한 면마스크 제작 사업은 지난 4월1일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으로 선정됐고, 이후 총 750개의 면마스크 세트를 제작했다. 아동용을 제외한 500개의 성인용 면마스크 세트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면마스크 제작사업 추진을 위해 관

내 기왓골협동조합 및 공방인 엘림문화센터와 협력해 제작을 위한 구상 단계부터 배포를 위한 대상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했다.

이정민 와동장은 “와동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와동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조직이 협력하여 면마스크를 제작하고 함께 배포하는 데 의미가 깊다”며 “이번 사업이 주민 스스로 협력하여 실행하는 주민자치의 토대마련과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와동행정복지센터(031-481-6082)

고잔동

관내 식당과 연계한 사랑의 반찬 지원

고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식당 3곳과 연계해 저소득가구 20세대에 사랑의 반찬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사랑의 반찬세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당을 돕자는 뜻에서 마련됐으며, 식당 3곳의 메뉴를 적절히 배합해 반찬세트를 구성했다. 4월28일을 시작으로 주 1회씩 총 10주간 저소득가구 2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반찬세트 전달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대상

자에게 미리 전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문 앞에 두고 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임항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운영난을 겪는 관내 식당과 이동불편을 겪는 저소득 대상자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정규 고잔동장은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고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관내 식당과 연계한 이번



반찬 나눔이 고잔동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고잔동행정복지센터(031-481-6335)

백운동

보성·라성·시민시장 등 주 2회 자체방역 “안심하고 찾아주세요”



백운동주민자치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시민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내 14개 거점을 지정하고 자체방역시스템을 구축했다.

방역시스템 구축은 백운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의 외출 자제와 전통시장 방문이 뜸해져 매출 감소로 인한 소상공인들이 처한 생계의 어려움 해소를 돕고자 전액 도비 지원을 통해 마련됐다. 보성상가, 라성상가, 시민시장 내에 방역물품과 약품을 비치·대여해 상인들이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자체방역사업에 동참하며 안심상가 조성에 앞장섰다.

자체방역활동은 5월 말까지 매주 화·금요일 주 2회 운영됐으며, 소독을 마친 상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사진을 상점 입구에 게시해 홍보했다.

김동길 백운동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의 상인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심상가를 조성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전통시장을 안심하고 방문하셔도 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백운동행정복지센터(031-481-6736)

물품 기부 또는 성금 모금에 관심이 있는 시민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 031-481-3190

저소득층 대상 | 안산시 복지정책과 031-481-3025

코로나19 관련·저소득층 대상 |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문화재단, 청년오픈창작클래스 '청어' 회원 모집

전문 극작 수업부터 공연제작까지 성장과 배움의 시간으로 꽉 채워요!



낭독극 '제제는 라이브 중'

안산문화재단이 안산 청년을 위한 극작 및 공연제작 수업인 안산청년오픈클래스 '청어'를 운영한다. 안산청년오픈클래스 청어는 청년들에게 창작 활동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층 더 나은 창작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1·2기 수업으로 이뤄진다. 1기 수업에서는 전문 극작 수업을 통해 희곡 작성하는 법을 강의하고 2기 수업에서는 연출, 연기, 무대 등의 공연제작을 지도한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1기 극작 수업에서 탈고된 희곡을 선정해 공연 제작 발표에 나서는 등 안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높인다.

'청어' 활동을 하면서



연극을 하고 싶어 휴학을 했을 때 제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였어요. '청어'와 함께 했던 16년 여름, 17년 여름, 19년 가을을 잊지 못해요. 덕분에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매년 기억에 남는 계절들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성희, 20대



2017년부터 음악극 '청춘, 어른?', 연극 '재가 했는데요', '슈뢰딩거의 고양이와 파블로프의 개', 낭독극 '제제는 라이브 중' 등 다양한 공연이 제작돼 매년 무대에 올랐고 완성된 희곡을 모아 희곡집을 만들고 있다.

안산문화재단은 6월 한 달 동안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관내 대학생을 대상(만 19세~30세)으로 안산청년오픈클래스 청어 회원을 모집하고, 오는 7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저는 극작을 전공했지만 글을 쓰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런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을 '청어'를 통해 해결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게 되고, 삶을 글로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내 글'에 대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제작 과정에서 배우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생각하고 수정하는 작업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배움과 성장을 가져다 준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송재윤, 20대

※ 모집공고는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ansanart.com>)에 게시 예정입니다.

문의 : 안산문화재단(031-481-0527) 이선희 명예기자 jamyu70@hanmail.net

첫 재난기본소득, 더 나은 안산을 위해 착한 기부 할 수 있다!

안산희망재단, 이주민과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 기부 프로젝트 진행

안산희망재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지역 미등록 이주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첫 재난기본소득, 더 나은 안산을 위한 착한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안산지역 민간공익재단이자 지정기부금단체인 안산희망재단이 직접 기획했다.

안산시는 현재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관내 거주하는 8만8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7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난 4월부터 지급했다.

안산희망재단 측은 외국인 주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대해 안산시 특성상 외국인 이주민 인구 밀도가 높은 산업도시라는 점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관내 미등록 상태 이주민이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등록 이주민이 노동현장에서 소외되거나 차별 대우를 받는 일도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안산희망재단 관계자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민도 생계를 위한 노동과 소비활동을 하는 지역 일원으로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이들을 위한 나눔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이번 재난기본소득



기부 프로젝트에 동참한 안산희망재단 이사진

기부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이라며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지역 화폐 '다운'을 활용한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안산지역 민간 이주민지원단체들과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기부 프로젝트는 1천4명의 기부를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릴레이 후원도 진행 중이다. 또 이천환 안산희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솔선수범해 재난소득 기탁서를 작성하는 등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천환 이사장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람들

의 관심 밖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이들을 꺼안고 보듬어 주는 것이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희망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기부 프로젝트는 미등록 이주민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안산지역 소외계층 등 다른 분야를 선택해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는 '재난기본소득 특별기탁서' 작성과 함께 모금 계좌에 입금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오는 8월까지 이어지는 기부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안산희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안산희망재단(031-411-1984) 황정욱 명예기자 loosedom@hanmail.net

안산시의회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활성화 특위

2·3차 회의 열어 지역 각계 목소리 청취

안산시의회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5월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각계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위 이번 회의에는 상록수·단원 보건소,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보육정책과, 대중교통과 등 16개 안산시 부서 관계자들과 (사)대한약사회 경기도지부 안산시분회를 비롯해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 안산상공회의소,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농업인단체 등 지역 민간단체 25곳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와 복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농업, 예술, 관광, 교육, 보육, 대중교통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은 지역사회 전 부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7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의료 지원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코로나19 가을 위기설에 따른 대응책, 재난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파악,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의 홍보 강화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으로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착한 임대인 운동이 언급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농가 현황 조사와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어 8일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따른 시 대응 예산의 규모 및 시 재난안전기금의 용처 등 코로나19 시국에서의 재정 운용에 대해 위원들의 질문이 집중된 가운데 지역 관광 자원의 홍보 방식 다양화와 예술인 생계 지원책 수립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부각됐다. 아울러 코로



나19 지원에서 교육·보육계의 민간 영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 대중교통과 관련된 제도 보안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는 점에도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위 위원들은 이를 동안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경청하는 자세로 임했으며, 회의 중간 중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회의는 의회 홈페이지로 생중계 돼 그 의미를 더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미래의 빛', 간담회 개최

경로당 활성화 설문조사 내용 및 관련 연구 용역 추진 논의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미래의 빛'이 최근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5월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미래의 빛 소속 추연호, 한명훈, 강광주 의원과 시 외국인주민복지팀장 및 노인시설팀장, 연구단체의 외부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김숙향 사회복지학 박사 등이 참석했다.

'미래의 빛' 팀은 지역 경로당 활성화 방안 마련을 연구 과제로 삼아 올해 초부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안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조사 설문지 내용 공유와 안산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따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조사 설문지는 일반설문 23개항, 심층질문 12개항으로 구성되며, 설문조사 대상자는 지역과 유형을 안배해 10개 경로당에서 5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안산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경우, 지역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경로당이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지역사회 내에서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과업 목적으로 했다.

아울러 이용노인과 운영책임자, 사업담당자에 대한 심층면접(FGI)을 실시하며, 국내·외 지원정책 등을 비교 분석해 안산시의 경로당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경로당 기능



다양화 시범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의 빛 소속 의원들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경로당 시설과 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연구 용역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는 모두 꽃이다' 현장 목소리 청취

지역 장애인복지 부문 현황 파악 및 개선사항 논의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는 모두 꽃이다' 소속 의원들이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우리는 모두 꽃이다 소속 의원은 5월15일 상록구 부곡동에 소재한 '큰술빵집'에서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6곳의 시설장들과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최 장소부터 특별한 의미가 담겼다. 간담회가 열린 '큰술빵집'은 지역의 한 복지재단이 발달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설립한 제과점으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다. 의원들은 연구단체의 올해 첫 현장 활동을 이곳에서 진행함으로써 장애인들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뜻을 전했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직업재활시설과 주간보호센터 6곳의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한 공유와 의원들의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시설 관계자들은 장애인을 돌볼 인력의 충원과 장애인들이 이동시 사용할 특수 차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개별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이동권 보장이 장애인 발달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기에 나온 요구였다. 또한 이들은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장애인 근로자들의 월급조차 감당할 수 없게 돼 매출 확대를 위한 자구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관심도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섬세한 정책과



배려가 공동체의 희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었던 만큼 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을 충실히 진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같은 소통의 자리를 더욱 자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긍정행동지원 방안 연구를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는 모두 꽃이다' 팀은 정종길, 현옥순, 유재수, 이진분 의원 등 4인 체제로 지난해부터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나비잠: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김치사랑, 눈웃음이 매력적인 막내아들

아기이름: 박시연(남) 출생년월: 2018년 2월

2018년 2월 9일, 우리집에 셋째이자 늦둥이 시연이가 태어났다. 너무 뜻밖에 와줘서 태명도 뜻박이었던 시연이. 갓난쟁이부터 눈이 반달되게 웃던 시연이다.

모유, 분유 가리는 것 없이 쪽쪽 먹던 아가가 이제는 밥 한 공기는 똑딱하며 또 김치는 어찌나 잘 먹는지, 어디를 가던 시선 집중이다.

입맛이 아재입맛이라 곰국이며 해장국 등등 너무 좋아한다. 모든지 양 볼 가득 뽕뽕하게 넣고 먹는 우리 집 막내^^ 아직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밥도 잘먹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운 우리 시연아~ 아빠, 엄마, 누나, 형은 시연이를 너무나 사랑해~ 셋째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 박철우(상록구 이동)



책 읽는 안산 / 6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희망을 말하다』

아동



봄아, 우리가 희망을 만들자

저자 최열 / 출판사 도요새

아이들을 대변하는 '봄아'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기후변화 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그를 통해 희망으로 가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인도한다. 미래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이 환경 문제에 개념 찬 어른으로 자라나도록 도전하고 있다.

청소년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이 있습니다

저자 윤경일 / 출판사 서교

이 책에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지를 오가며 절대빈곤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에피소드 38편이 담겨져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오지에 학교와 도서관을 지어 주고, 빈곤퇴치를 위한 각종 구호사업과 자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제3세계의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희망을 심어온 지은이의 살신성인 행위가 한 권의 단행본으로 나왔다.

성인



지금 이대로 좋다

저자 법륜 / 출판사 정토

지난 8년간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 SNS 매체를 통해 매일 전해졌던 법륜 스님의 희망편지 콘텐츠를 한 권의 에세이로 정리했다. 그동안 인생의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 온 법륜 스님이 자존감, 우울, 성공, 행복, 사랑, 가족, 직장, 인간관계, 화, 수행 등 삶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독자
투고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세금이기는 해도 공짜로 받은 기분이라서 너무 좋죠. 평소 가정에 필요했던 것, 자녀들에게 사주고 싶었던 가구 같은 것들 사주려고 합니다”

안산시에 8년 째 살고 있는 김모(52)씨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사용계획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4월20일 시작된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사전에 마치고 5월4일에 처음 카드를 사용한 소감을 밝혔다. “첫날은 그걸로 집 앞 정육점에서 바베큐용 고기와 채소를 구매했어요. 세금이기는 해도 시에서 공짜로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평소에 옷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이모(22)양은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짬 해둔 바지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짬해 놓은 바지가 5만 원 대라서 구매를 꺼리고 있었는데, 다온 카드로 구매했어요. 시에서 준 돈으로 제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라며 생활안정지원금 사용 소감을 남겼다.

코로나19로 바짝 줄라맨 허리띠를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만들어 준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시에 따르면 5월19일 기준,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률이 85.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국 최대 다문화 도시의 대표다운 면모를 보여주



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안산시의 최근 SNS를 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1천 515명 중 81.7%가 ‘생활안정지원금이 가게에 보탬이 된다’고 응답했다. 가맹점 업주 24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모두 이용객과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평소에 필요했던 가구부터 내돈주고 사기는 아깝지만 지나치게 맘에 드는 바지까지. 코로나19로 우울했던 기분을 ‘플렉스(FLEX·많은 양의 돈을 한 번에 쓴다는 유행어)’로 치유할 수 있는 요즘이다.

·김하은(상록구 사동)


 전문가
기고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된 내용을 흔히 '민식이법'이라 한다. 관련법이란 '도로교통법' 일부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현행법은 보행자의 보호와 교통안전에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2배를 상회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취약한 실정이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민식이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찬반 논의가 있었다. 찬성하는 의견은 제안이 유와 거의 같은 이유를 들고 있으며, 반대하는 의견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쳐도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 보는 '운전자 독박 씌우기법'이다. 과실 범죄를 고의범 수준으로 형량을 지나치게 무겁게 정한 것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 민식이법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찬반의 의견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가를 논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 다만,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게 된 배경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 개정의 주된 이유는 현행 제도가 보행자 안전(특히 어린이 안전) 확보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제도가 보행자 안전에 취약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 이전에 차량운전자들의 자동차 문화가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10년도 넘는 판결문의 내용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에 때로 절망하기도 한다. 어느 판사가 '우리나라의 후진적이다 못해 야만적인 자동차 문화를 생각해 보면 횡단보도에서 특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피고 인만을 탓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를 거듭하여 발생시킨 피고인의 준법의식 부재는 무겁게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한 실정이 지금은 좀 나아졌는가? 만일 그러한 실정이 나아졌다면 민식이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어야 한다. 횡단보도는 차량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라는 구역이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나 적색이나의 문제보다 횡단보도라는 구역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 판례 또한 인명 경시 수준이 야만에 가깝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교통신호를 잘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준수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속도 30km를 제대로 지켰다면, 민식이법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도로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람은 어린이만이 아니다.

· 김성천 변호사


 독자
투고

'누구나'에 해당되는 고려인동포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인 3세인 유알렉산드르라고 합니다. 원곡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한국에 온 지 4년 정도 되었고 선부동에서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외에 고려인청소년봉사단 멤버로 한-러 통역팀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 끝난 후 시간이 되는 날에 고려인너머센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통역상담과 한국어멘토링을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 채로 원격수업으로만 학교생활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안산시 생활 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다"라는 글을 보고 나는 이 "누구나"에 해당되는가? 우리가족은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를 끝까지 본 뒤 신청 대상에 외국인들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산시민으로서 한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 대상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는 안산시가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야 기사를 보고 우리 부모님까지 신청방법, 날짜,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줄 수 있지만 안산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한국어가 서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너머센터와 고려인청소년봉사단은 주말인 5월 9일, 10일과 16, 17일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담당하는 봉사자 4명과 외부에서 질서유지, 발열체크, 방문 자기기록을 담당하는 봉사자들도 많았습니다.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맡은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5월 9일과 10일에는 300명 가까이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내려도 타인과 거리를 유지해 줄을 썼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하는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고 질문에 답을 준 뒤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감사하다는 한 단어만 들어도 모든 피로가 한 번에 사라지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안산에 살고 있는 것에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들도 안산처럼 외국인들까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주면 모두가 행복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인 3세 유알렉산드르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연합뉴스TV (5월 11일)
안산시,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OBS (5월 12일)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지정

한빛방송 (5월 15일)
안산 코로나19 환자 모두 퇴원, 청정지역 유지

한빛방송 (5월 21일)
다문화도시 안산,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안산시 도서관 개관 알림

◇개관일: 2020. 6. 8.(예정)
※ 중앙정부 지침 및 학교 개학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대상: 공공도서관 15곳, 공립작은도서관 14곳

◇주요내용: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개방
오전 9시~오후 6시, 도서관 좌석 50% 운영

◇방역대책: 방문자 발열체크 및 인적사항 체크
1일 2회 방역소독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공시대상: 97,994필지(안산시 전체 개별토지)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참조

◇이의신청: 2020. 5. 29 ~ 6. 29.

◇제출대상: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접수

◇문의: 안산시 토지정보과(481-2628, 2637)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공모기간: 2020. 5. 25. ~ 7. 13.

◇참여대상: 안산시민

◇대상사업: 동 지역사업 및 시 정책사업

- 우리 동네 생활주변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특색사업
- 시 단위 추진사업(공동체, 일자리창출, 문화체육 등)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예산공개시스템(www.ansan.go.kr/fin)
- 우편·방문: 시·구·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제안서' 작성

◇문의: 안산시 기획예산과(031-481-3028)

반월·시화 산업단지 출퇴근 통근버스 이용안내

◇운행: 안산역·상록수역·원시역·오이도역·정왕역 → 반월·시화·시화MTV단지 경유

◇이용요금: 무료

◇운영업체: (주)그린코리아(031-403-9510)

◇문의: 안산시 기업지원과(031-481-2624)
※ 정류소 및 노선은 안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학습자 모집

◇신청기간: 2020. 5. 25. ~ 6. 30.

◇신청자격: 경기도내 거주 만 50세~69세

◇교육내용: 노후를 위해 '일'을 희망하는 도내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기술 교육과정 운영

◇신청방법: 교육기관 방문신청, 이메일, 우편 접수

◇문의: 경기도 평생교육과(031-8008-4589)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 확대

◇신청기간: 2020. 6. 1. ~ 7. 31.

◇지원대상: 2020. 5. 4.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지급형식: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시행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별 5부제 운영

◇대리신청: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미성년자(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문의: 경기도 외국인정책과(031-8030-4652)

6월은 제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입니다
자동차세를 제납하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지합니다

6월의 독자 참여 퀴즈

〈안산특독〉에 담긴 이야기를 꼼꼼히 읽으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Q 안산시는 김홍도의 작품 6점의 진품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 안산시가 소장한 단원 김홍도 작품 제1호는 무엇일까요?

① 사슴과 동자 ② 화조도 ③ 여동빈도

.....

Q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올해 4월, 안산에 1곳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곳은 어느 동네일까요?

① 일동 ② 월피동 ③ 와동

퀴즈 응모 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디지털 업서로 연결됩니다.
정답을 찾아 제출해주세요.
응모자 중 2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무작위 추첨 후 개별 문자 발송 (3개월 이내 중복 당첨 불가)

응모기간: 6월 30일까지 5월 호 정답: ③, ②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메일(ansannews@korea.kr)로 보내주세요.
※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채택 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만원 이상)는 다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안산시에 바란다

주제: 안산시가 고쳤으면 하는 불편사항 또는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분량: A4용지 절반, 관련 사진

독자투고 및 전문가 칼럼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법률상식 / 미담(칭찬) 사례

분량: A4용지 2/3 이상, 관련 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24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A4용지 절반, 아기 사진 1장

2~3면 소개된 '안산시 코로나19 대응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은 시민분들의 후기를 모집합니다! (6월14일까지)

분량 a4용지 절반, 관련사진